

특허심판원장, IP5(선진 5대 특허강국) 특허심판원장 회의 참석

- 제6차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 중국 푸저우 특허심사협력센터에서 개최 -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9. 16.(화)~17.(수) 중국 특허심사협력센터(중국 푸저우)에서 개최된 ‘제6차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IP5(세계 5대 특허청) 소속 각국 특허심판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 각국 특허심판제도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 심판 사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 (중국) 가오성화, (일본) 노나카 마츠오, (미국) 제프리 아브라함(원장 대리 참석), (유럽) 파스칼 그리츠카(원장 대리 참석)

특히, 이번 회의에서 우리 특허심판원은 그간 추진해온 ▲ 심판 절차의 투명성 제고, ▲ 신속심판 제도 운영, ▲ 디지털 기반 심판 관리 시스템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국제 공조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회의와 함께 열리는 사용자 세미나(User Seminar, 17일 개최)에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IP5 각국의 심판 제도와 운영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회의는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통해 특허심판 제도의 선진화를 이끌고, 사용자 친화적 심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행사 개요 및 사진

담당부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진욱 (042-481-5879)
		담당자	사무관	강광석 (042-481-8610)

사진 1 :서울수 특허심판원장이 9월 16일(화) 중국 푸저우 특허심사협력센터에서 열린 제6차 IP5(한국·중국·일본·미국·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2: 서울수 특허심판원장(왼쪽에서 4번째)이 IP5 특허심판원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파스칼 그리츠키(Pascal Gryczka) 유럽 특허심판원 부원장, 노나카 마츠오(NONAKA Matsuo) 일본 특허심판원장, 후원후이(Huwenhui) 중국국가지식산권국 부청장, 서울수 한국 특허심판원장, 가오성화(Gao Shenghua) 중국 특허심판원장

1 개 요

- 기간 및 장소 : '25.9.16.(화) ~ 9.17.(수) / 중국 푸저우
- 참석자 : IP5 각국 특허심판원장 및 관계자
 - 한국 특허청 : 서울수 특허심판원장 등 5명
 - 중국 특허청 : 가오성화 특허심판원장 등 13명
 - 일본 특허청 : 노나카 마츠오 특허심판원장 등 6명
 - 미국 특허청 : 제프리 아브라함 특허심판원장 대리(온라인 참석) 등 2명
 - 유럽 특허청 : 파스칼 그리츠카 특허심판원장 대리 등 2명

2 일 정 (관련 일정 포함)

일 시	내 용
9.15.(월)	■ 푸저우 지식재산권법정 방문 및 간담회
9.16(화)	■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 <의제> · 최근 동향 및 각국 관심주제 · 특허심판사건의 관리역량 강화
9.17(수)	■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 사용자(Users) 세미나
9.18.(목)	■ 한·중 특허심판고위급 회담 <의제> · AI 관련 최신 심판사례 논의(경연정 심판관) · 제약 분야 최신 심판사례 논의(신창훈 서기관)

* 한국과 중국 푸저우는 1시간 시차(푸저우가 한국보다 1시간 느림)